

# 디지털 아트 아카이브 품질평가를 위한 탐색적 연구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Quality Evaluation for Digital Art Archives

박상애,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sa310@hotmail.com

김기영,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gkim@yonsei.ac.kr

Sang Ae Park,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Yonsei University

Giyeong Kim,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Yonsei University

본 연구는 매체의 기술적 진보에 기인한 디지털 환경에서 보존되고 활용되는 아트 아카이브의 품질 평가를 위해 품질평가변수에 적용될 수 있는 개념요소를 탐색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아트 아카이브 생성자, 이용자, 관리자를 대상으로 비구조화 및 반구조화 면담을 수행하고 정리된 내용에 기초하여 개념요소를 도출한다.

### 1. 서론

아트 아카이브는 영구보존 가치를 지닌 예술 기록물로 평가 및 선별, 정리 및 배열, 기술 및 보존을 거쳐 활용된다. 공공영역에서 수집 기록을 중심으로 그 보존과 활용이 논의되던 아트 아카이브는 사립 예술기관과 개인들 사이에서 새로운 맥락으로 그 구축과 활용이 시도되고 있다. 작가와 기획자들에 의해 재해석되는 아카이브는 정보로서의 기록 보존 및 활용에서 나아가, 아카이브를 활용한 작품과 전시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를 적용한 제작 과정 전반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처럼 아트 아카이브는 예술 환경과 작업의 근거가 되며, 다시 예술 활동의 자원이 되는 순환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아카이브를 이해함에 있어 20세기까지 보존에 집중하였다면, 디지털 환경이 보편화 된 21세기는 활용의 중요도를 주목하고 있다. 영구보존기록으로서의 아트 아카이브와 현장에서 재 구조화된 아트 아카이브가 공존

하고, 디지털매체가 기록매체로 활용되고 있는 환경에서 아트 아카이브의 개념과 선별기준, 그리고 평가기준에 대한 포괄적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아트 아카이브 품질 평가의 개념적 요소를 탐색하여 이를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디지털 정보서비스 평가 요소

디지털 정보서비스를 형성하는 세 가지 구성 요소는 콘텐츠, 이용자, 시스템이다. 사용성은 이용자와 시스템간의 상호작용을 근거로 도출될 수 있으며, 유용성은 이용자가 콘텐츠를 사용하며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성과는 시스템을 통한 효과적 콘텐츠 제공여부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Tsakonas & Papatheodorou, 2005).

EU는 디지털 정보서비스 개념모형으로 디지털 라이브러리 참고 모델을 도출했다. 여기에서 디지털 도서관 도메인은 콘텐츠, 이용자, 기능, 정책, 품질, 개발구조로 이루어진 조직과 시간, 공간 언어를 포함하는 보완요소로 구성된다. 디지털 도서관참고 모형은 시스템 개발, 콘텐츠의 제공과 이용, 시스템의 운영을 주목하고, 각각의 활동은 관리 정책, 시스템 기능, 콘텐츠와 시스템의 품질을 통해 평가된다(Candela et al. 2011).

## 2.2 서비스 품질 평가

대표적 서비스 품질 평가 모형으로 SERVQUAL과 SERVPERF를 들 수 있으며, 전자서비스 품질평가를 위한 E-S-QUAL 모형도 있다. 이러한 모형들에 기초해 도출한 도서관 서비스 품질 평가 모형은 LibQual과 DigiQual이다.

황재영 등(2006)은 시스템, 정보, 서비스 각각의 품질을 디지털도서관의 전자서비스 평가에서 독립변인으로 보았다. Zeithaml et al.(2003)는 상호작용 품질, 환경 품질, 결과 품질이 서비스 품질을 구성한다고 제안했다. 이성신(2010)은 환경 품질 측정을 위한 요인들로 기술적 요소에 대한 개인적 인식, 과거 유사 서비스 사용 경험, 기술적 신뢰성, 사용용이성, 내비게이션, 이용자지원, 접근성, 웹사이트의 심미성, 이용자 개인화, 정확성을 제안하고 있다.

## 3.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디지털 아트 아카이브 품질평가를 위한 선행과제로 디지털 아트 아카이브의 품질을 구성하는 개념요소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자료를 대상으로 한 문헌연구와, 예술분야 종사자 8명을 대상으로 한 비구조화 심층면담 및 포커스그룹

을 실시하여, 그 내용 분석을 통해 품질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요소를 도출하였다. 피 면담자는 예술분야에서 연구, 작업, 기획 등의 업무 수행경력이 4년 이상인 예술가 및 연구자를 표본으로 하였으며, 2016년 5월 한 달간 면담이 진행되었다. <별표 1 참조>. 5인의 피 면담자들과는 심층면담을, 이외 3인과는 포커스그룹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모두 피 면담자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1시간 내외로 이루어졌다.

## 4. 분석결과

### 4.1 아트 아카이브 속성

피 면담자들은 아트 아카이브를 작품을 제외한 문서, 이미지, 동영상, 사운드 등으로 전시, 학술연구, 작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피 면담자들은 아카이브를 작업의 소스로 활용하여 작품을 제작하거나, 그 과정을 하나의 산출물로 제작하고 다시 아카이브로 편입시키는 지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순환적 기능은 아트 아카이브의 고유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아트 아카이브의 개념적 정의에서 예술작품 이외의 예술적 창작의 결과물을 아카이브로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작가성과 저자성을 분리하여 이해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로운 지적이다.

한편, 피 면담자들은 공통적으로 아트 아카이브의 본질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었다. 기록된 문자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 이외에 아트 아카이브는 기록물 자체에 내재된 시간성과 물성을 통해 생성자의 당시 심리상태와 환경적 배경 등을 알려준다. 기록물이 지니는 색감과 조형미 등의 미학적 요소들은 아트 아카이브의 본질적 가치를 구성하는 기본요소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피면담자들은 기록을 실물로 열람

하는 방식을 선호하였다.

기록의 맥락에 따라 정리·배열된 아카이브는 이용자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피면담자들은 브라우징을 통해 아카이브의 맥락을 파악하고 새로운 주제 접근 방향을 인식하는 것과 아키비스트와의 면담을 통해 숨겨졌던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아카이브 열람의 특성으로 꼽았다.

반면 디지털 환경에서 아카이브 키워드 검색이 용이하지 않음을 지적했는데, 현재는 키워드 검색만으로 목표하는 기록을 찾을 수 없지만, 향후 기술의 발전과 메타데이터의 추가를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유일한 원본기록이라는 특성을 지닌 아날로그 아트 아카이브가 디지털 환경에서 활용될 때는 다른 아카이브와 호환되어 제공되고, 관련 아카이브와 연결되고, 이용자의 필요에 맞춘 가이드가 제공되기를 원했다. 피 면담자들은 아카이브의 활용이 개방적 형태로 운영되기를 기대하며, 의미론적 확장을 지원하는 기술적 진화를 희망하였다.

또한 피 면담자들은 아트 아카이브가 지니는 태생적 배타성 이외에도 저작권으로 인한 이용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예술현장의 저작권 관련 쟁점들은 사례나 제도에 관한 이해에 근거하지 않은 채 창작물의 활용을 위축시키고 있다. 아트 아카이브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요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카이브의 이용에 있어 피면담자들이 전제하는 사항은 서비스 기관의 신뢰성이었다. 피면담자들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선별과 평가를 거친 아카이브는 신뢰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반면 관리기관의 선별과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피면담자는 자료의 신빙성을 전적으로 생성자와 이용자 간의 문제로 인식하고, 아카이브 서비스 기관의 평가의 의미를 부인하였다.

## 4.2 디지털 아트 아카이브 평가를 위한 개념요소

심층면담을 통해 관찰된 아트 아카이브의 속성에 기초하여 디지털 아트 아카이브 평가에 사용될 수 있는 7가지 개념요소를 도출하였다. 첫 번째는 기술적 신뢰성으로, 실물 아트 아카이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생성환경, 생성자의 심리적 상태, 실물이 지니고 있는 미학적 요인들을 디지털 환경에서 얼마나 잘 전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개념이다. 두 번째는 무결성이다. 이는 아트 아카이브가 지닌 맥락정보를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맥락의 훼손 없이 구현할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다. 생성자가 부여한 질서와 기록물들의 관계성을 적절히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연구에 새로운 방향성을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세 번째는 활용성이다. 복제가 쉬운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의 침해 없는 활용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디지털 사본이 서비스 될 때 공개와 활용 범위의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에 관한 문제이다.

네 번째는 서비스 신뢰성이다. 아트 아카이브가 수집, 관리되는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신빙성 있는 기록을 풍부하게 확보할 수 있는 요건으로 볼 수 있다. 아카이브 기증자와 이용자 모두 아카이브 서비스 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기초하여 기록을 기증하고 이용한다. 다섯 번째는 접근성이다. 디지털 환경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기록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접근가능 하도록 검색도구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이는 기술(技術)적 시스템, 콘텐츠의 메타데이터, 아카이브 컬렉션의 맥락을 유지하는 기술(記述)방식 등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 여섯 번째는 주제에 관한 참고정보서비스이다. 아키비스트들은 소장 아카이브 컬렉션들을 정리, 배열, 기술하는 과정에서 포함되어 있는 모든 기록물을 살펴보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기록물이나 인식하지 못하는 맥락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아카이브 참고정보서비스는 아카이브 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마지막 요소는 확장성이다. 디지털이 가지는 시공간의 무한성과 호환성을 바탕으로 관련 기록물의 자동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카이브 이용패턴 분석을 통한 아카이브 이용 지형도를 제공하거나, 이용자 요구 조사에 기초하여 아카이브 이용 가이드를 제안하는 등의 미래 지향적 지원을 통한 아트 아카이브의 확장 가능성을 제안한다.

### 5. 결론

기록 저장매체가 디지털로 변화하는 환경에서, 예술작품들과 경계에 놓여있는 예술기록을 수집, 관리, 활용에 적용 가능한 평가모형의 요구에 대해 본 연구는 심층면담을 통해 평가에 고려되어야 할 개념요소를 도출하여 제안하였다. 제안된 7가지 개념요소들은 기술적 신뢰성, 무결성, 활용성, 서비스 신뢰성, 접근성, 참고서비스, 확장성으로 디지털 아트 아카이브의 시스템, 콘텐츠,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관찰될 수 있다. 이 요소들은 향후 평가 항목 정의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별표 1> 피 면담자 구성

순번	성별	교육 수준	직업	경력	면담 시간
1	여	박사	연구자 겸 큐레이터	18년	75분
2	여	석사	큐레이터	10년	80분
3	남	학사	작가	4년	60분
4	여	석사	아키비스트	5년	60분
5	여	석사	큐레이터	8년	60분
6	남	석사	작가	5년	75분
7	여	석사	예술기획자	12년	
8	여	석사	기자	8년	

### 참고문헌

이성신 (2010). 도서관 E-Service 품질에 대한 소비자인식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7(1), 119-136.

황재영, 이응봉, 최호남 (2006). 국가과학기술전 자도서관 고객만족지수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4), 247-270.

Candela L, Athanasopoulos, G., Castelli, D., El Raheb, K., Innocenti, P., Ioannidis, Y., ... Ross, S. (2011). *Digital Library Manifesto*.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Tsakonas, G. & Papatheodorou, C. (2006). Analysing and evaluating usefulness and usability in electronic information services.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32(5), 400-419.

Zeithaml, V. & Bitner, M. (2003). *Services Marketing*. New York: McGraw-Hill Higher Education.